

LG 産電(株), '95年 사업계획 확정

LG산전 CU(대표 : 李喜鍾)는 올해를 21세기 초일류 산전업체로 발돋움하기 위한 원년으로 삼고 경영의 글로벌화와 현지밀착형 상품모델을 개발,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

LG산전이 확정된 「95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LG산전, 금성계전, 금성기전, LG하니웰등 산전 CU 4개사의 총매출목표를 지난해 1조 4천5백억원보다 16.0% 증가한 1조 6천 8백 20억원으로 책정,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적자사업을 개선하는등 사업구조를 대폭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LG산전 CU는 또 오는 2000년 매출규모를 총 5조원으로 잡고 이를위해 올해부터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 지난해 말 현재 7개 지사, 4개 현지법인을 오는 2000년 15개 지사, 20개 현지법인으로 늘리기로 하고 올해 수출목표를 지난해보다 36.4% 늘어난 2천2백10억원으로 책정, 전체 매출액 가운데 수출비중을 13.1%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계열사별 매출목표를 보면 LG산전이 지난해(7천6백억원)보다 14.7% 늘어난 8천7백20억원, 금성계전이 지난해(2천7백50억원)보다 12.7% 늘어난 3천 1백억원, 금성기전이 지난해(3천3백80억원)보다 21.3% 늘어난 4천1백억원, LG 하니웰이 지난해(7백70억원)보다 16.8% 늘어난 9백억원 등이다.

LG산전 CU는 이와관련, 올해 시설투자규모를 지난해보다 11.0% 늘어난 총 1천2백억원으로 잡고 LG산전 90억원을 투입하는등 LG산전의 시설투자에 5백50억원, 금성계전 CNC코어가공머신 도입등에 2백10억원을, 금성기전의경우 3백30억원을, 시설확장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연구개발투자에 지난해 대비 12.8% 늘어난 6백90억원을 책정하고 금성산전 2백 35억원을, 금성계전 1백 80억원을, LG기전의 2백 2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極東電線工業(株), 品目別 70여종 品質規格 획득

선박·통신·전력용 및 특수용 전선류와 커넥터류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極東電線工業(株)(代表: 李滄鍾)는 국내 KS 23개, 미국 UL 18개, 캐나다 CSA 8개와 6개국 선급협회의 선박용 전선규격을 포함, 생산품목별로 70여종의 품질규격을 획득했고 작년 7월에는 영국 인증기관인 DNV-QA로부터 ISO 9001인증을 획득했다.

품질관리 금상(88년), 생산성 대상(93년-기술혁신 부문), IR52-장영실상(93년), KT마크(93년) 등 기술 및 품질 관련 영예를 휩쓴 사실 역시 극동전선의 남다른 기술개발 노력을 드러내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附設연구소(88년 설립)가 기초전력공학연구소와 손잡고 난연무독재료, 저연성 PVC 등의 신소재 콤파운드 기술을 개발해 내 難燃무독성케이블을 생산으로 연결시키는 개가를 올렸다.

耐오존성 고무, 콘크리트주입용 호스, 수중용 PVC케이블, 해상구조용 신재료, 바이패스 케이블(무정전 공급장치), 소방용 케이블 등도 극동전선이 최근의 기술개발을 통해 이뤄낸 고부가가치 상품들이다. 극동전선의 이같은 기술개발 활동은 수출증대로 직결되고 있다.

지난 92년 1075만 달러(로컬분 포함)에 머물렀던 수출액이 지난해에는 1500만 달러로 40%가량 신장했다.

극동전선이 특히 세계정상을 자랑하는 분야는 선박용 케이블이다. 내수시장에선 전력통신용 케이블로 경쟁사들과 각축을 벌이고 있으나 선박용 케이블 수출분야에선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선박용 케이블 선박 및 해상구조물용 케이블 수출액은 지난해 1160만 달러 규모로 이 회사 수출의 77% 가량을 차지한다.

새해에는 극동전선의 수출이 더욱 활기를 띠 전망이다.

그간 추진해 온 기술 및 신제품 개발이 생산성 향상과 해외오더 확대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지역 에이전트이던 후루가와社와 합작으로 나고야에 임포트케이블이라는 자본금 3천만엔 규모의 현지유통법인이 설립돼 새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對日수출이 작년 80만달러에서 새해에는 150만달러로 경증 신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株)東亞電機, 을 賣出 4백억 목표

(株)東亞電機(代表:李建洙)는 올해 매출목표를 4백억원으로 책정하고, 영업구조 조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SMPS(스위칭모드 파워 서플라이)최대공급업체인 동사는 지난해 3백5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 올해에도 주력 부문인 이동통신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중국등 해외수출도 전망이 밝아 전년대비 50억원 이상의 외형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전자교환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컸던 영업구조를 대폭 축소하고 대형정류기등에 매출신장을 늘릴 계획이다.

三星電機(株), 新增設등 3천 6백억 투자

三星電機(株), (代表:李亨道)는 올해 매출을 지난해 대비 47.3% 늘어난 1조 4천억원, 투자 3천6백억원을 골자로 하는 95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지난해 칩부품및 오디오비디오용 기기의 호황세에 힘입어 9천5백억원의 매출을 기록,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었던 삼성전기는 올해에도 이같은 활황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올해를 「신경영 정착의 해」로 설정하고 시설투자에 2천9백억원, 연구개발에 7백억원등 총3천6백억원을 투입해 △전략상품집중육성 △유망신규사업진출 △국제화추진 가속화 등 3대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자동차 電裝品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외현지공장 신증설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직수출을 지난해보다 76%가 증가한 7억5천만달러로 크게 늘릴 계획이다.

삼성전기는 이를 위해 영상부품·칩부품 다층 PCB(MLB)등 전략제품의 증설투자에 1천50억원, 자동화및 합리화등 보완투자에 1천억원을 배당하고 2·4분기부터 본격 가동될 자동차 전장품에 8백50억원을 각각 투입하며 튜너·편향코일·고압변성기·헤드드럼등 영상부품과 칩부품 등 전략제품을 「월드베스트제품」으로 육성키위해 생산라인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